

건널목 지킴이 칠면조



차도를 가로질러 반대편 숲으로 이동하는 친구들이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도록 깃털을 한껏 부풀리고 차량을 가로 막은 수컷 칠면조가 카메라에 담겼다. (사진 원안)

지난 14일 뉴햄프셔주 힐스버러카운티에 있는 리치필드의 외곽도로를 달리던 도널드 포머로는 길을 건너는 칠면조 무리를 발견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수컷 칠면조가 암컷 칠면조와 새끼 칠면조들이 길을 다 건널 때까지 깃털을 세워 몸을 부풀려 도로 한가운대를 막아선 채 쫓박 않고 서 있었다는 것.

이 장면을 카메라에 담은 도널드는 “중앙선 부근에 선 수컷 칠면조는 다른 칠면조 무리가 길을 다 지날 때까지 보초를 섰다.” 고 말했다.

도널드가 공개한 영상에서는 수컷 칠면조 한 마리가 12마리의 다른 칠면조가 길을 건너는 동안 지키고 선 모습을 볼 수 있다. 도로를 달리던 양방향 차들은 칠면조 무리가 길을 다 건널 때까지 멈춰서 있다. 마지막 칠면조까지 길을 건너자 중앙선에 서 있던 칠면조 역시 아스팔트를 건너 무리를 따라갔다.

뉴햄프셔주는 서식지 감소와 무분별한 밀렵으로 150년 전부터 야생 칠면조가 서서히 감소해 현재는 찾아보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주 당국은 40년 전부터 다른 지역에서 야생 칠면조를 데려와 개체 수를 늘리기 위해 노력했으며 이에 따라 현재는 약 2만5,000마리의 야생 칠면조가 뉴햄프셔주에 서식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친구가 빌려준 돈 1만 배로 갚은 남자

어려운 시절 친구가 빌려준 1,000위안(약 150달러)을 32년 뒤 원금의 1만 배인 1,000만 위안으로 갚은 ‘우정’ 이 큰 울림을 주고 있다.



사연의 주인공은 순성룡(46, 오른쪽) 씨. 순 씨의 나이 14살이 되던 해인 1987년, 그는 장쑤성 쉬저우에서 친형이 운영하는 이발소에서 샴푸 도우미로 일했다. 장 씨(56, 왼쪽)는 이곳의 단골로 순 씨가 머리를 감겨 주면서 둘은 친구가 되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발소는 문을 닫았고 순 씨는 일자리를 잃었다. 그러자 장 씨가 당시 본인의 1년 연봉인 1,000위안을 모두 순 씨에게 쥐 새 이발소를 차리게 해줬다.

덕분에 순 씨는 ‘이발소 사장님’ 이 됐지만 직원을 들춰지가 되지 않아 모든 일을 도맡아 해야 했다. 장씨는 순 씨가 끼니를 거를까 봐 도시락을 싸다 주고, 시간이 나면 직접 밥을 지어다 주기도 했다. 하지만 1991년 순 씨가 군 복무를 위해 지역을 옮기면서 둘은 연락이 서서히 끊겼다.

이후 1996년 순 씨는 스페인으로 이주했다. 웨이터, 주방장, 노점상 등을 거쳐 장신구 도매 사업을 해 거부가 됐다. 성공한 그의 마음 속에는 늘 장 씨에 대한 그리움

이 자리했다. 2008년부터 여러 차례 순 씨는 스페인에서 쉬저우를 방문해 장씨를 찾았지만 아무 결실을 얻을 수 없었다. 그리고 2012년 7월 다시 쉬저우를 찾은 그는 공안국의 도움을 받아 장 씨를 찾을 수 있었다.

순 씨는 과거의 은혜를 잊지 않고, 집을 두 채 선물하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장씨는 “당시 친동생으로 여기는 마음에서 했던 일” 이라면서 “절대 받을 수 없다.” 고 말했다.

하지만 순 씨는 어려운 시절 아낌없이 모든 것을 베풀어주었던 장 씨에게 보답하고 싶었다. 순 씨는 향후 중국의 와인 시장 잠재력이 클 것이라고 여기고, 쉬저우에 1,000만 위안을 들여 장 씨의 명의로 와이너리를 개업해 장 씨를 회장으로 추대했다. 은퇴 후 근근이 먹고 살아가던 장 씨가 돌연 와이너리 회장이 된 것이다. 그리고 순 씨의 예상대로 중국인의 와인 선호도가 높아졌고, 사업은 나날이 성장하고 있다.

순 씨에게 장 씨는 인생의 은인이자 ‘친형’ 으로 자리한다. 순 씨는 매년 큰 명절이면 가족과 함께 스페인에서 중국 쉬저우를 찾는다. 바로 ‘큰형’ 인 장씨와 명절을 함께 보내기 위해서다.

‘태아 속 태아’ ... 아기 뱃속에 아기가

콜롬비아에서 신생아가 제왕절개로 쌍둥이를 출산했다. 이른바 ‘태아 속 태아’ (fetus in fetu)로 불리는 희귀 사례이다.

동생을 배 속에 품고 태어난 아기는 출생 24시간 만에 제왕절개 수술을 받았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심장 없이 태어난 동생은 숨을 거뒀다.

병원장 아이사 가리도는 “언니의 복중에 있던 동생은 손과 다리는 자랐지만 심장이 없어 살려낼 길이 없었다.” 고 말했다.

‘태아 속 태아’ 는 100만 명 중 1명꼴로 나오는, 매우 희귀한 사례다. 게다가 엄마가 출산하기 전 의료진이 복중 태아의 복중에 또 다른 아기가 자라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것은 이번이 세계 최초이다. ‘태아 속 태아’ 는 첫째가 태어난 뒤 뒤늦게 발견되는 게 보통이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엄마 모니카 베가는 임신 7개월 때 초음파 검사를 받으면서 ‘태아 속 태아’ 가 자라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의료진은 태아의 복중에서 자라는 동생이 언니의 생명까지 위협한다고 판단, 제왕절개를 제안했다. 엄마는 임신 37주 만에 제왕절개로 아기를 출산했다. 이어 아기는 출생 24시간 만에 제왕절개로 동생을 낳았다.

가리도는 “산모와 아기의 건강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프로토콜에 따라 매우 조심스럽게 연이은 제왕절개를 준비했다.” 며 “다행히 산모와 첫 아기는 모두 건강해 바로 퇴원할 수 있었다.” 고 말했다.

‘태아 속 태아’ 는 쌍둥이가 잉태되는 단계에서 태아가 다른 태아로 흡수되면서 발생하는 사례이다. ‘기태류’ 라고도 불리며 지금까지 세계에서 보고된 사례는 총 200건밖에 되지 않는다.

www.myevergreenschool.com

“에버그린 프리스쿨 임니다”

GOD IS LOVE 1JOHN4:19

evergreen
PRESCHOOL • KINDERGARTEN
SINCE 2012

“아이들이 VISION을 꿈꾸는 학교”

5882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1

714.670.9687